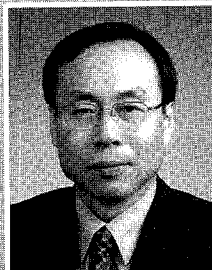


# 시대의 어두움을 헤쳐나간 등불이여!



전 충남 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필중

1957년생, 민통련 중앙위원, 전민련 중앙위원, 한청첩 부의장,  
현 국무총리소속 전행경수도후속대결위원의 대전사무소장

지금은 어렵겠지만 민통련 시절에  
함께 고생했던 선배·동지들에 대한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 보았다.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보면서  
앞서간 열사동지들에 대한 슬픔을 누를길 없다.  
그러나 한편 지금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지들에 대한  
애뜻한 애정이 새삼 솟아오른다.

## 시대의 아픔 속으로

대학 3학년때인 77년 유신말기에 가까워질 무렵 나는 세제형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던  
강구철 형(지병으로 작고)이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나 교사로 있던 대전  
BBS야학에서 사회교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때까지만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반 정도가 수업시간

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인가? 그러나 학생들을 하나하나 면담하면서 그 어린 여학생들의 대부분이 대청댐 수몰지구에서 대전으로 나왔는데 정규학교를 가지 못하고 새벽에 공장으로 출근해서는 12시간 정도 일하고 저녁에는 야학시간에 늦을까봐 끼니도 거른 채 학교로 달려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때서야 밥을 짓고 밀린 빨래를 하다 보면 새벽이 돼서 3~4시간 눈을 붙인 다음 또 출근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제아무리 기를 쓰고 공부를 하려 해도 쏟아지는 잠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장시간 노동으로 발등이 부어 신발이 잘 신겨지지 않는 어린 여학생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 얼마나 척박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그들에 비해 편하다 편한 대학생활을 하는 내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 그때부터 실존적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여름방학이 되자 구철형이 방학에 선배들하고 같이 공부해보지 않을까? 하고 제안하셨다. 그래서 이범구(만델의 후기자본주의를 번역했다.) 형과 이완규 형 등과 같이 경제사 공부를 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들에 대해 점점 눈에 띄어갈 무렵 같이 물놀이를 가게 되었다. 캄캄한 밤에 물 속에 들어가 목만 내놓고 선배들이 가르쳐 주던 '독립군가' '진달래' 등의 노래와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암담한 조국의 현실에 대한 분노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끓어오르는 열정의 도화선이 되었다.

군대 생활을 하던 중에 79년 10·26과 12·12 사태 그리고 80년 5·18 광주민주항쟁을 겪게 되었다. 당시 5·18 항쟁 기간에는 전군이 휴가중지 상태였는데, 광주가 진압되자 며칠 후부터 휴가가 재개되었다. 풀리자마자 첫 휴가를 나온 나는 한 후배와 함께 광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직 광주항쟁이 끝난지 며칠되지 않아 거리에는 아직도 불탄 자국이 남아 있고,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집총자세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현역군인인 나나 학생인 후배도 계엄군이나 혹은 시민군에 붙잡혀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대도, 진상을 알고 싶은 마음에 시내를 겁없이 돌아다녔고, 향토사단에 근무했던 후배를 면회하여 당시의 처절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두환 군사독제의 서슬이 시퍼런 때라 아무도 공개적으로 그 처참한 진실을 증언할 수 없었다.

제대한 후 84년에 대전에서 사회과학 서점인 창익서점을 경영하면서 당시 공개적인 운동 조직 하나 변변히 없어서 사회과학 출판계에서 몸담고 있던 많은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때 처음 뵈게 된 김희택 선배는 그 이후 민통련, 전민련 등을 거치면서 항상 고락을 같이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금지서적 판매나 민청련에서 발행하던 '민주화의 길'의 지역 배포책으로 의심을 받아 매일 불려다니는게 일과였다.

## 민통련과 대전·충남지역

85년 2·12 총선에서 야당이 약진을 한 바로 그 다음날인 2월 13일, 충남민주운동협의회(충남민협)가 출범을 했다. 그 당시 전북민협 등 타지역에서 속속 출범했던 조직들이 창립 하자마자 대부분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고 왔던 터라 우리도 긴장했었으나 2·12 총선 패배의 충격파가 커서인지 아무일 없이 지나갔다.

노동, 농민, 종교, 문화단체 등의 연합체로 출범한 충남민협은 3월 15일 지역의 학생운동 출신들로 구성된 충남민청이 창립하여 가입함으로써 비로소 지역의 명실상부한 민주화운동 연합의 대표조직이 되었다.

86년 신민당 개헌 현판식 투쟁으로 충남민협 사무국장이던 강구철 선배가 구속되고 5·18 시위 등으로 충남민청 집행부 5명이 전원 옥쇄(?)하자 잠시 지역운동의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었다. 내가 강구철 형의 후임으로 충남민협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굳게 닫혔던 사무실도 다시 열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는 수시로 경찰들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여 유인물 등을 수거해 갔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싸워 유인물들을 도로 찾아다 놓기도 하였다. 충남민협은 민통련에 가입한 이후 전국에서 온 타지역의 동지들과 만나면 민주화운동의 전략·전술을 논하느라 꼬박 밤을 새울 때가 많았다.

86년 겨울인가 1200여명의 학생들이 잡혀간 전대미문의 건국대 사태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이 사건을 보면서 전두환정권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국적으로 장기집권 공투를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대전·충남 지역의 장기집권 공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알고 당국에서는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였다.

그러던 중 87년 1월 21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였다. 민통련에서도 전국적으로 추도집회를 하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래 2월 2일날 하기로 해서 대전에서는 2월 2일 기독교봉사회관으로 장소를 정하고 준비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준비가 늦어 2월 7일로 연기했다. 대전에서는 내친김에 2월 2일 하기로 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는 대회라 걱정이 많이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당일 행사장을 경찰들이 철통같이 에워쌌고, 대회장에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이런 사태를 미리 예상한 우리는 서대전 사거리에서 차선을 점거하고

집회를 시작하였다.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오는 경찰들을 민청식구들의 육박전으로 막아내고 확보한 공간에서 나는 핸드마이크로 대회진행을 감행했다. 행사 중간에 전열을 정비한 경찰들이 최루탄을 집중난사하자 나는 점퍼를 벗어 핸드마이크를 보이지 않게 감싼 다음에 골목으로 뛰었다. 주머니 사정이 형편없던 우리에게 2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산 핸드마이크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골목에서 대열을 정비하고는 다시 시내 곳곳에 나뉘어 뛰어다니면서 우리의 주장을 알렸다.

2·7 추도집회에 이어 3·3 평화대행진을 하면서 우리는 전국 동시다발투쟁이 우리의 주요한 투쟁전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한 지역에 집결하는 투쟁은 군사정권의 힘도 한곳에 집중하여 공격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데 반하여, 전국 동시다발투쟁은 독재정권의 힘도 분산되어 효과적인 진압이 어렵고 또 각지의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그 지역의 지리에도 밝아(?) 효율적인 투쟁을 벌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전국 동시다발투쟁이 일상화되었던 것 같다. 한번의 동시다발전국투쟁이 끝나고 민통련에 모이면 매년 몇 사람씩 활동가들이 구속되어 대신 새로운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비밀비재 했다.

4·13 호헌조치가 발표되자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서서히 분출하기 시작했다.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과 교사, 교수, 예술인들의 성명이나 농성, 단식투쟁 등이 이어졌다.

그때쯤 어느날인가 대전의 가톨릭농민회관에서 전국의 운동대표자들이 모여 민통련 정책실 차장이던 이해찬 선배가 보고한 정세분석을 들었다. '4·13 호헌조치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민주화운동세력은 엄청난 탄압으로 지하로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순순히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 즉 야당을 포함한 각계 각층이 총망라된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군사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 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 결의로 역사적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5월에 결성되었다. 나도 국민운동충남본부를 결성하느라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다.

6월 항쟁의 시발이 된 6·10 국민대회는 사실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대선후보 선출일에 맞서 준비한 투쟁이었다. 사실 그날 하루만의 투쟁으로 준비했었으나 그것이 광범한 정치적 불만을 갖고 있던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6·10 대회 이후 서울에서는 시위대가 명동성당에 모여 농성을 계속함으로써 투쟁의 불씨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었고, 6월 15일 대전에서 충남대생 1만여명이 유성에서 대전역까지 경찰차를 불태우며 12km 대행진을 하면서 6월항쟁의 전국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곧이어 부산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6월항쟁의 태풍이 전국을 뒤흔들었던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가 폭발적이었던 것은 군사정권의 폐해가 극에 달해 있기도 했지만 투쟁지도부가 소수의 강한 투쟁방식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교회타종이나 차량경적올리기, 태극기흔들기 등 다양한 대중 투쟁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6월항쟁 중에 대전시민들은 저녁때만 되면 시내 중심가에 모두 나와 기다리다 누군가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면 금새 시내 전역을 해방구로 만들곤 했었다. 항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정권이 대전을 '제2의 광주'로 만들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충남민협과 민청의 집행부는 연석회의를 열어 '대전이 제2의 광주가 될지라도 끝까지 싸운다.'고 결의하고 거리로 달려나갔던 그때의 기억이 새롭다.

### 선배·동료 등 동지들에 대한 기억의 단상들

한참 지난일들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동지들에 대한 기억을 살려보고 싶다. 먼저 문익환 목사님은 항상 개인보다 조직의 결의를 실천하는데 충실하려 하셨다. 또 항상 사심이 없는 순수한 정신의 소유자로 젊은이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해낸 큰 용기를 갖고 계셨다.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언젠가 서울로 출장가려 대전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문목사님을 만났다. 대전에서 강연을 마치고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하셔서 버스 옆자리에 같이 앉아 가게 되었다. 목사님은 내 손바닥을 펴라고 하시고 꺾꺾 누르시면서 건강법에 대해 설파하셨다. 그러다 갑자기 내게 구두를 벗고 발을 목사님 무릎에 올려놓으라고 하셨다. 망설이면서 발을 올려놓으니 여기저기 눌러 보며 처방을 내리셨다. 젊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으셨던 목사님이 개발한 '파스법'에 대한 일장의 강의도 해 주셨다. 나는 너무도 황송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어르신께서 아무스스럽없이 나의 땀새나는 발을 만지면서 건강을 염려하시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연상했다면 무리일까?

계훈제 선생님은 문 목사님이 투옥됐을 때 민통련 의장 대행으로 조직을 굳게 지키셨던 버팀목이셨다. 트레이드마크인 국민복과 흰 고무신을 신고 독재정권을 질타하고 사자후를 토하시던 모습이 선연하다.

이창복 선생님은 항상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서 계시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앞세우시는 겸손과 절제의 선비이시다. 선생님의 선비기질은 국회활동에서도 조금도 변치 않

으셨고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의장님이시다.

김순호 신부님은 대전지역운동의 기둥으로서 항상 우리에게 든든한 우산이 되어 주셨다. 항상 어려운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민주화 운동으로 고생하는 이들에 대한 그분의 애정은 가이 없다.

이명남 목사님은 NCC 인권위원장,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 국민운동충남본부 의장 등 대전·충남지역 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투쟁의 현장에서 항상 앞장서시는 우리의 영원한 선봉장이시다.

김중철 선배님은 언론인으로 민주화운동의 대선배이시다. 항상 충청도 양반으로서의 품모를 잃지 않으시고 부족한 후배들을 챙겨주시는 분으로 후배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신다.

성유보 선배님은 성실성의 대명사로 민주언론의 외길을 굳게 견지하는 소나무같은 분이다.

김근태 선배님을 처음 뵈는 것은(당신은 기억 못 하실테지만) 81년 말인가 82년 초의 겨울에 경기도 소재의 어느 농가에서 있었던 도시산업선교회의 합숙교육에서였다. 대구지역의 민주화운동가 여러 명과 대전에서는 나 혼자 참석했던 그 교육은 김동완 목사님이 주관하셨다. 어느 성명 미상의 강사분이 당시 정세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너무나 논리정연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었다. 그후 민청련 의장이 되시면서 비로소 김근태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남영동에서 살인적인 고문을 받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있다. 운동하면서 그분의 정연한 논리는 너무나 유명해서 후배들 사이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적으면 서론, 본론, 결론이 완벽한 하나의 논문이 된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해찬 선배님은 항상 전략기획통이셨다. 민통련에서도 그러했는데 정치계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셔서 이해찬 선배와 함께 하면 항상 승리한다는 불패신화도 생겼다. 선배님은 당시 규모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운동권에서 유일하게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셨다. 차종이라고 해야 포니였지만 모두들 그 차를 타보고 싶어 안달이 났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 차를 얻어 타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서울에 출장왔다 내려가려던 참에 마침 청주에서 강연이 있어 포니를 몰고 내려가려던 선배님을 만났던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청주 진입로의 플라타너스 길에 쏟아지는 햇살 속을 뚫고 달려가던 장면이 수채화처럼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이광철 선배는 민통련 후반기에 가서 부문운동협의회가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할 무렵 사실상 민통련을 떠받쳐 갔던 지역운동협의회 대표를 맡아 큰 역할을 하셨다. 수배 중에 우리집에 들르신 적이 있는데 마침 그 다음 날 둘째 딸아이를 낳게 되었다. 병원으로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찾아와 우리 딸이 태어난지 몇 시간만에 신사분(?)으로부터 장미꽃을 받는 영광을 갖게 해 준  
‘밋을 아는 사나이’이다.

이명식 국장은 민통련 조직국장으로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일꾼이다. 지금같이 자유롭  
게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민통련 회의를 한번 하려면 서울에서 출발하여 각 지역을 돌며 회  
의장소와 일시를 알리는 데만 꼬박 일주일 정도가 걸렸다.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연락체  
계와 노력 후에 만나게 되는 동지들의 얼굴은 항상 반가웠으며 큰탈없이 조직이 굴러가게  
된데는 이명식 동지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명식 동지가 없었더라면 민통련의 수명이 짧아  
졌을지도 모를 만큼 그의 헌신성은 놀라웠다. 지금도 그와 함께 땀 흘리며 밤새 토론하던 동지  
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부산의 김재규 선배, 이호철, 전남의 송재형, 장갑수, 이춘  
문, 지금은 고인이 된 신영일, 대구의 이강철, 이태현 선배님, 남영주, 박종덕, 권오국, 김균  
식, 전주의 노병관, 정훈 등등

정선순 국장을 빼고서는 민통련을 말할 수 없다. 그는 민통련 살림을 도맡아 꾸려왔다. 아  
무런 고정수입도 체계적인 예산계획도 세울 수 없는 도깨비같은 살림살이를 용케도 잘 꾸려  
냈다. 정 국장의 살림솜씨는 아마도 종합예술인(?)의 경지에 다다른 것 같았다. 지금은 관록  
있는 의원님이시지만 여전히 우리 민통련 동지회의 살림은 정 국장의 손 안에 있다. 그 외에  
도 일일이 거론하지 못한 많은 동지들이 있었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민통련 시절에 함께 고생했던 선배·동지들에 대한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 보았다.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보면서 앞서간 열사동지들에 대한 슬픔을 누를길 없다. 그  
러나 한편 지금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지들에 대한 애뜻한 애정이 새삼  
솟아오른다.

앞으로도 민통련 동지들과 함께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살아가리라 이 아침에 다시 굳게 다짐한다.